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캔버리어코드」 6년 인증 획득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원장 임창복/이하 KAAB)이 지난 8월 4일 열린 캔버리어코드 국제전화회의를 통해 회원국 및 관련 기관의 만장일치로 6년 인증을 획득하는 개가를 올렸다.

캔버라 어코드(Canberra Accord)는 국가별 건축사들 간의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각 해당국들이 제시하고 있는 건축사등록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증된 건축학 전문학위를 인증기관들 간에 상호 인정해주는 협약이다.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멕시코의 회원국과 CAA(영연방건축사연합)에서 이번 인증을 받음으로써, 각 국가 및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교육 학위의 동등성이 상호 인정되어 건축전문 인력의 국제 이동성이 확보됐는데, 무엇보다 건축사 자격의 국제간 상호 인정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로 상호간에 건축사 자격이 동등해지면, 향후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국내 건축사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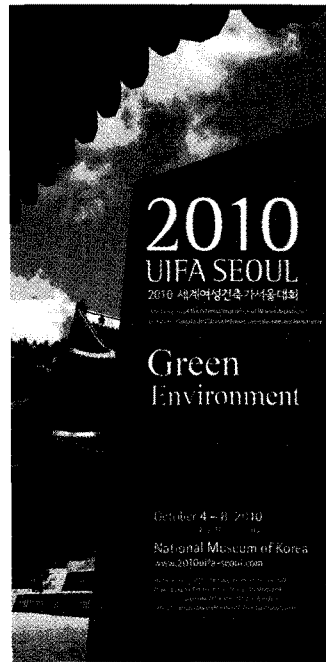
이번 인증은 지난 2009년 4월에 열린 캔버리어코드 제2차 서울총회에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제정 및 보완됐으며, 정회원자격 유지를 위해 회원 간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평가하는 기준 및 일정이 확정됐다. 이후 KAAB는 실사를 위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했고 캔버리어코드 사무국은 2인으로 구성된 실사팀을 한국에 파견,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팀은 실사결과보고서를 캔버리어코드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회원들은 이를 검토해 인증을 결정하게 됐다.

실사결과에 대한 최종결정은 최고 등급인 6년 기간 정회원 자격 유지와 단기간에 개선이 요구되는 3년 그리고 준회원국으로 강등의 3단계로 구분된다. 향후 회원들은 2011년 중

국, 2012년 캐나다, 2013년 미국, 2014년 CAA, 2015년 호주 일정으로 회원 간 상호평가가 진행되며, KAAB에서도 회원들의 평가에 대표단을 보내 참여하게 된다.

한국여성건축가협회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 개최



한국여성건축가협회(회장 오경은)는 오는 10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2010 세계여성건축가 서울대회'를 개최한다.

전세계 여성건축인들이 서울에 모이는 이번 행사는 세계여성건축가협회(UIFA)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적 이슈인 'Green Environment'에 대한 고취와 한국의 건축문화, 한국 여성건축사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개최된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80개국에서 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어느 해보다 큰 규모로 치러질 전망이다. 10월 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막식과 환영만찬을 비롯해 세션별로 'Green Environment'란 주제 하에 기초연설 및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서울시내의 한국문화와 건축작품을 탐방하는 코너도 마련돼 각국 참가자들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예정이다. 이밖에 POST-TOUR는 지역에 위치한 국내 건축을 만날 수 있는 코너로, 전주 한옥마을과 경부 불국사, 석굴암 등

을 견학한다.

세계여성건축가협회(UIFA)는 지난 1963년 설립된 단체로,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80여 개국이다.

2010와이드AR 건축비평상 공모

격월간 건축리포트 「와이드」를 2008년 창간한 강행미디어랩이 다가오는 2011년 1,2월호로 창간 3주년을 맞이하여 '와이드AR 건축비평상'을 공모한다.

응모작은 기존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작품, 인물 등 소재뿐만 아니라 건축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시의성 있는 문화현상을 다루는 것이라면 모두 가능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한국건축평단의 재구축과 새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기획됐다.

- 응모자격 : 내외국인, 학력,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
- 응모편수
  - 주평론(1편) : 200자 원고지 50~70매 사이
  - 단평론(1편) :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응모마감 : 11월 30일 까지
- 당선작 발표 : 2011년 1월 초 개별 통보, 건축리포트 「와이드」 2011년 1,2월호 지면 및 네이버카페 'AQ Korea' 게시판
- 시상내역 : 당선작 1인 상장, 상금 100만원 / '와이드AR' 필자로 우대하여 집필기회 제공, '건축평론동우회' 의 회원자격 부여
- 문의 : 02-2235-1960

2010 후반기 원도시아카데미 세미나

2010년 원도시아카데미의 하반기 세미나는 'CONVERGING' 이라는 단어로부터 출발해 건축을 생성하는 관계의 네트워크에 집중하고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시 공간의 매개적 단위건축을 제안하는 건축사의 해법을 들여다본다.

- 행사개요
  - 형식 : 초대작가의 전시와 증진건축가, 교수, 비평가가 참여하는 집담회 형식
  - 전시 : 초대작가의 작업을 보여주는 내용물을 전시

- 집담회 초대작가들의 PT이후 패널들을 통한 초대작가의 건축세계에 대한 이레
- 일정 : 매월 두 번째 목요일 7시
- 9월 9일 : BAU건축 / 패널 : 구영민, 김원식, 이종건, 이충기
- 10월 7일 : 정수진(SIE건축) / 패널 : 구영민, 박준호, 배영환, 함성호
- 11월 11일 : 광희수(이템건축) / 패널 : 공철, 김광수, 김승귀, 함성호
- 장소 : 원도시건축 지하 1층 홀
- 문의 : 02-2156-6764,  
www.wondoshi.co.kr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 공모전에서 건축물 부문에 원광대학교의 'Harmony'와 가로(街路)디자인 부문에 명지대학교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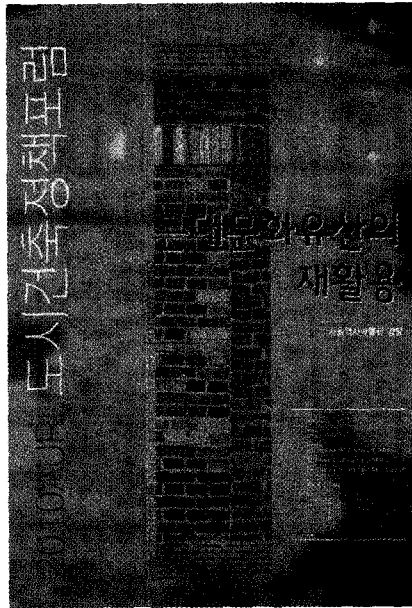
건축물 부문 대상 수상작 'Harmony'는 유선적 디자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일한 공간에서 장애 없고 안전하게 이용가능하도록 요소별 공간의 장애인 생활환경을 잘 표현하여 대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의 확대 보급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모전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을 일반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함으로써 장애인 등 시설 및 교통이용 약자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편의시설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2010 AURI 도시건축정책포럼**



'2010 AURI 도시건축정책포럼'이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은 '근대문화유산의 재활용'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근대역사건축물 등 문화재와 관련하여 보존과 관리를 둘러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이번 포럼에서는 논리의 쟁점을 도시적 관점으로 옮겨 건축차원의 문화재뿐만 아니라 도시와 지역을 아울러 근대문화유산을 살피는 발표와 토론의 장이 되도록 마련됐다.

주요 주제는 '도시문화유산과 개발의 공존 모델 및 프로세스', '근대문화유산의 재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건축문화유산에 대한 원형보존과 활용간의 균형논란'이다.

문의 : 김지희 031-478-9647

**신간안내**

**건축기술지침 (R1)**



대한건축학회, 대우건설 저 | 공간예술사

「건축기술지침」은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 중판을 거듭하며, 동일 분야의 모든 면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책으로 호평 받아왔다.

하지만 시대적, 기술적 변화와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누적된 모순이나 오류를 장기간 내재함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신간 「건축기술지침」은 그동안 새롭게 정비되거나 제정, 개정된 각종 법규, 코드(Code) 등은 물론 최근 새로 개발된 관리 툴(Tool)이나 재료, 신기술·신공법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내용과 구성면에서 획기적인 개정·증보됐다. 또한 종전 책의 내용이나 구성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만 수정·보강하는 단순개정 방식을 벗어나, 기존의 내용 및 도면 구성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독자들의 의견을 과감히 수용하여 전반적으로 완전 재구성하는 전면개정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총 4권으로 구성됐다.

(건축 I - 508쪽 | 건축 II - 472쪽 |

기계 - 236쪽 | 전기 - 272쪽)

· 문의 : 02-737-1020